

2008년 11월 10일 월 말씀

계단이 참 위험합니다. 계단에서 구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계단에서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원들은 다른 단체인원에 비해 10분의 1정도 밖에 사고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설교할때 매일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설교할 때 꼭 스스로 조심하라, 자기가 조심하라고 늘 이야기 하셨습니다.

작품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신앙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시간을 쓰고 글을 쓰고 또 말을 하고 합니다. 작품전을 하면서도 '이번 작품전을 할 때 전도는 몇 명해야지' 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옛날과 다르게 해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해서 그쪽에(전도에) 목적을 두고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무조건 신앙만 넣어 주지 말고 공부도 해야 될 때가 있으니 고3들은 잘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고등학생들은 기르고 키우고 해야 합니다. 고3들은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 이해시키면서 해나가야 합니다. 자꾸 다뤄보면 알게 됩니다. 지도자들은 무조건 애들을 뽕뽕 묶어서 신앙만 넣어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따라오게만 됩니다. 무조건 여유를 가지고 뭘 먹여가면서 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것만 한참 가르치고 가면 사회는 막 발달되어가니까 나중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신앙을 중심한 사회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학생들은 잘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방송국으로 해서 나가야지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변화가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계속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나가지 않으면 이 세계를 통솔 하지 못합니다.

시대가 발달 되서 옛날하고 완전히 다르게 운영해야하고 그래야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다르게 하는 것은 그 만큼 시대의 혜택이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계속 또 하고 꿈틀거리고 자꾸 해야 달라지는 것입니다. 늘 같은 사람도 옛날식으로 하면 자기 자신이 답답해서 자기 자신을 못 살려 갑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다르게 변해 가야 합니다.

필리핀 가는 사람은 교육을 철통같이 시켜줘야 합니다. 안전하지 못하니 조심시켜야합니다.

사람 머리는 금방 교육해도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먹는 것도 어디 빠뜨려서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한 번을 들어도 감각이 예리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것을 살펴야 합니다. 세계의 각 나라도 전체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본인들이 정신 차리고 해야 합니다. 본인이 열심히 해야 합니다.